

過去, 現在, 그리고 未來가 공존하는 항구도시 釜山

english

글. 김기성

Kim, Kisung

예가 건축사사무소, 사진작가

한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부산. 국제적 항구도시이자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위용을 자랑한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애환과 질곡을 품으며 도도히 발전을 이룩해 왔다.

수많은 외세의 침탈의 경로가 되었던 적도 있었고, 6·25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반도 각 지역의 문화적 합류점이 되기도 했다. 70~80년대의 눈부신 경제성장 동력의 발판이 되어 태평양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우리나라 국력과시의 출발점이자 거점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벋고동 소리와 함께 바다가 있는 낭만도시에는 오늘도 각자의 생활을 위한 힘

차고 생기 넘치는 발걸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밤이 되면 밤바다와 함께 현란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지며 드라마틱한 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6·25 참전 미군들이 야간에 도착한 부산항의 야경은 수많은 빌딩의 불빛으로 착각하게 해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아침이 되자 전날의 야경은 산비탈의 수많은 판자집임을 알고 두 번 놀랐다는 씁쓸한 일화를 가진 도시. 그러나 전쟁 이후 눈부신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른 항구도시 “釜山”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발전해가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해양시대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부산의 곳곳에 산재하는 아름다운 풍경 몇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수영만의 요트경기장 선착장

해운대의 아름다운풍경 중 하나인데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장소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경기장으로 개설된 곳으로 우리나라 요트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주변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어 멋진 풍광을 연출한다. 야간에는 광안대교를 지나는 자동차 불빛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야경이 연출돼 많은 사진가들의 촬영지가 되는 곳이다.





부산항대교와 광안대교의 야경

도시에 어둠이 내리고 먼 나라로 가는 뱃고동 소리에 부산항 전체가 중저음의 진동을 느낄 즈음에 항구도시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전등에서 나오는 색깔이 번갈아 가면서 부산항 대교의 현수구조물을 비춘다. 수면에 반영된 두개의 부산항이 다시 살아나 파노라마 처럼 펼쳐지며 생동감이 가득해 진다. 광안대교와 나란히 서있는 멀리 해운대 마린시티의 아파트 창문에서 하나둘씩 불빛이 켜지기 시작한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창밖으로 보석 같은 불빛들이 현란한 빛을 발하고, 광안대교를 질주하는 자동차 불빛의 궤적이 함께 하며 부산의 밤이 깊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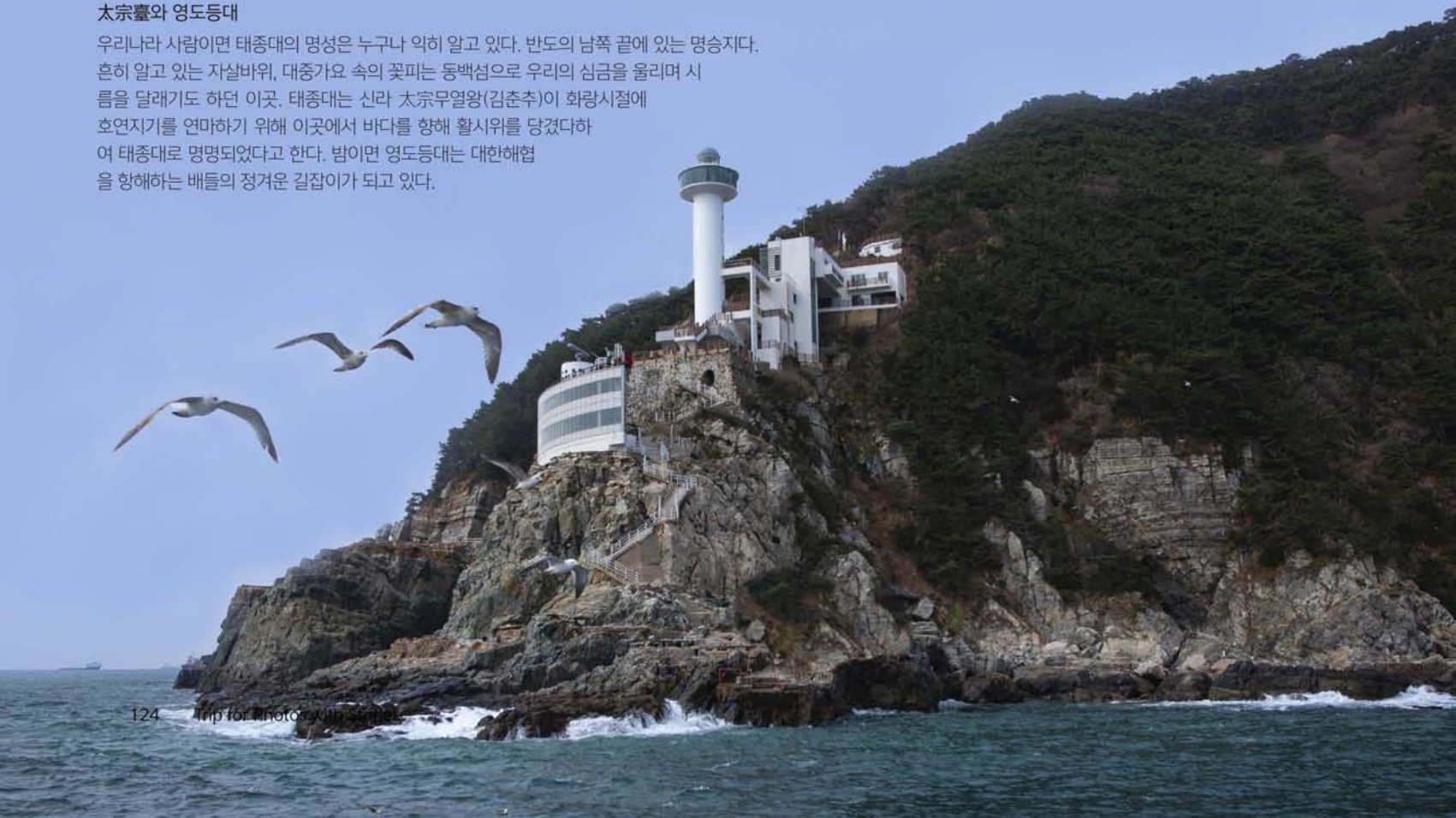
해운대의 마천루

부산 역시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음이 역력하다. 그러나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는 괴물로만 보이지 않음은 어째서일까? 6·25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앞만 바라본 수십년간의 무질서한 개발이 만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도시의 재정립과정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 치유과정에서 우리 건축사의 역할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무한한 자부심이 느껴진다. 현재 108층 규모를 자랑하는 마천루들이 키높이 경쟁을 하듯 스카이라인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10년, 20년 뒤의 해운대의 풍경이 어떨지 자못 궁금해진다.



太宗臺와 영도등대

우리나라 사람이면 태종대의 명성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다. 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명승지다. 흔히 알고 있는 자살바위, 대종가요 속의 꽃피는 동백섬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며 시름을 달래기도 하던 이곳. 태종대는 신라太宗무열왕(김춘추)이 화랑시절에 호연지기를 연마하기 위해 이곳에서 바다를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가 여태종대로 명명되었다고 한다. 밤이면 영도등대는 대한해협을 향해하는 배들의 정겨운 길잡이가 되고 있다.



죽성드림성당

기장군 죽성리에 위치한 죽성성당. 바다를 배경으로 외로이 서있는 고딕양식의 죽성성당을 바라보면 마치 외국에 와 있는 듯하다. 실 새 없이 들이치는 파도소리가 영화의 배경음악 효과를 연상하게 한다. 바람이 강한 날에 집채 만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장관도 볼 수 있다.



산토리니를 연상하게 하는 감천문화마을 바닷가 바위에 붙어있는 띠개비를 연상시키는 부산의 오랜 역사를 가진 마을. 전쟁 통에 오갈 데 없던 피난민들이 하나 둘씩 자리 잡아 열기싫기 종이박스, 나무판자 등의 부실한 소재로 삶의 터를 만들었다. 이를 시작으로 오늘날의 동네가 구성됐다. 얼핏 보면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나름대로 규칙과 질서가 자리 잡혀 생활에 장애가 되는 점은 없어 보인다. 울망줄망한 골목길에 들어서면 각자의 개성을 지닌 자그마한 생활공간들이 빼곡하다. 내가 가장 궁금했던 점은 이런 산비탈에서 집을 지을 때 각 집에서 배출되는 하수처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다. 그러나 걱정은 기우였다. 좁은 골목길 바닥에 잘 정비된 배수 구, 맨홀이 가지런히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 서로가 배려·양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통이 잘되고 있는 마을임을 알 수 있었다.





화손대 모자섬의 일출

우리나라의 아침을 가장 빨리 맞이할 수 있는 곳. 우리나라의 일출사진 촬영의 명소는 다수가 있지만 화손대의 일출은 건너편의 모자섬과 함께 가히 으뜸이라 하겠다. 모자섬 위에서 낚시를 즐기는 태공의 휘어진 낚싯줄에 걸린 해가 바둥대며 올라온다.



다대포항의 여명

밤의 고요를 건너내며 먼동이 트고 있다.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에 갈매기들이 막 출항하는 어선을 따라서 바다로 날아가고 있다. 출조하는 낚시꾼들이 모자섬으로 향하는 낚싯배에 오르기 위해 부지런히 잔교를 건너는 모습이 오버랩 되는 듯하다.



마린시티(Marine City)

마린시티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과거 수영만 매립 지였던 곳에 조성된 주거지 중심의 신도시다. 부산광역시 부촌 중 한 곳이며, 가장 화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현재 마린시티의 아경은 미국 뉴욕이나 홍콩,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에 준하는 한국 최고의 마천루 부류 자리 잡고 있다. 해운대 해수욕장이 근접해 있고 주변 경치와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국민명소가 됐다.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누리마루는 아름다운 동백섬에 위치해 있으며, 2005년 11월 18~19일에 열린 제13차 APEC 정상회담 회의장으로 사용됐던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누리마루 APEC하우스 명칭은 순수 우리말인 누리(세상, 세계), 마루(정상, 꼭대기)와 APEC회의장을 상징하는 APEC하우스를 조합한 것이다. "세계정상들이 모여 APEC회의를 하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울창한 동백나무와 송림으로 둘러싸인 자연경관과 함께 잘 어우러져 해운대의 관광명소 중 하나다.

